

지금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인연인지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 성전스님 -

경기북부권역 난임 · 우울증상담센터, ‘임산부의 날’ 맞아 기념행사 및 경기 임신 출산학교 개최

경기북부권역 난임 · 우울증상담센터는 지난 10월 10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며 행사와 함께 경기 임신 출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산부와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김성희 · 이기현 의원실, 장석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권범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한정열 임산부약물정보센터장, 지구덕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자 및 경기도의원, 고양시의원, 임산부와 그 배우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 임신 출산학교에서는 △태교 음악회 △강의(주제: 부모, 다시 사랑에 눈 뜨다) △원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 공과대학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헬스케어’ 합동 포럼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24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동국대학교 공과대학과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의료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권범선 병원장, 황승훈 공과대학장, 임윤정 연구부원장, 성기훈 카카오헬스케어 이사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지능형 로봇의 역할, 생성형 AI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동향, AI 스마트 병원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이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0월 16일 ‘한방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한의학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내원객을 대상으로 공진단, 경육고, 우황청심원 등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의 대표 보양제를 홍보하며 보양제의 효과와 장점을 알렸다. 또한 병원 대강당에서는 한방 건강 강좌와 함께 아카펠라 그룹 ‘보이스토이’의 초청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김동일 병원장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동해시에서 지역 주민 대상 의료 봉사활동 펼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0월 20일 동해시 삼화동 일원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동일 병원장을 비롯해 한의사 7명, 간호사 13명, 물리치료사 3명 등 총 28명의 의료진과 쌍용C&E 임직원 등이 참여해, 300여 명의 주민들에게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의료봉사단은 쌍용C&E 동해공장 종합기술훈련원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혈압 · 혈당 검사, 침, 물리치료 및 약처방 등 종합적인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2013년부터 쌍용C&E와 함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해 및 영월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심행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과 연합 홍보활동

정심행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10월 23일 병원 로비에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와 연합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본원의 환자, 보호자, 내원객,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해 증진을 목표로 했다. 홍보 행사는 총 3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에게 기관 리플렛과 물티슈를 배포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알렸다.

